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전문 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2월호(통권 162호) 272-273쪽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도달하는 성숙의 길 (Time To Wait)

마크 애벗(H. Mark Abbot)

/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퍼시픽대학 캠퍼스 교회의 목사.

모든 기다림은 무척 힘들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라고 야고보는 말한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지금이 무슨 때지?” 이것은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물어야 할 질문이다. 나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기다릴 때이니라.”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할 때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야고보는 구약성경의 다른 예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라는 자신의 권면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첫 대강절 이야기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잉태한 이 두 여인이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들은 임신한 모든 여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음에 틀림없다.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기다림이 훨씬 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신은 많은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든 갱년기의 여성이었다. 다른 사람은 잉태할 시기에 결혼도 하지 않은 십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게 여겨졌다. 두 사람 모두가 처한 삶의 정황은 매우 난처한 임신을 야기했다.

우선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해당하는 신약성경의 짝이다. 나는 때때로 그들을 잭과 베티(애칭들-역자)로 부르는데,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아이가 없는 채로 세월은 계속 흘러갔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이것은 고도의 의학기술을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기 전 시대에 부부들이 하던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이미 많이 포기한 상태였다. 이제 두 사람 다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전히 긍정적이며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물론 그 사실은 슬프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더구나 나는 잭과 베티가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또한 잭이 베티를 비난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없다. 나는 그들이 고상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서로를 신중한 배려 가운데 대하는

것을 본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지향적인 가정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천사가 늙은 제사장에게 말한다.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고 천사에게 소리친다.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특별한 약속이어서 잦은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불신 때문에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 내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즉 머리가 조금 어떨게 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해보라. 그러나 약속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고 그녀는 외친다.

기다림에 관한 이 위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세례자라고 알려진 요한이 태어나면서 성취된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 든 사가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다리라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말한다. 이것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가 첫 대강절 이야기에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다.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다리라.

“농부를 보라” 예수님의 이 형제가 말한다. “어떤 농부도 추수를 서두르지 않는다. 농부는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너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비가 온다 해도 무르익어 추수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농부와 같이, 일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인내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한다.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시련은 신자들의 삶에 인격과 성숙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서신의 한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해지려는 우리의 바람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선한 소원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성숙과 온전을 이루도록 소원하라. 그분은 우리가 이룬 성숙함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다리라. 그분과 약속하신 그의 재림에 시선을 집중하라.

실제적으로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견디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터널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터널의 끝에는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시 105:19)라는 구절이 있다.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떠한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는 말한다. “서로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한 작가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 분주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으며, 교회는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병균에 감염되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돌아서게 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다.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다려야 하며,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쌍,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되던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보내신다. 마을의 목수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이 십대 소녀에게 가브리엘이 알린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가 놀라 묻는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천사님, 당신은 생물학도 알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그러나 어린 마리아가 임신한 직후를 상상해보라. “주님, 입덧이라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천사는 말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쩌서 당신은 당신의 아기를 임신한 데 대한 부작용을 없애주지 않는 건가요?”

또한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줄줄이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상상해보라. 마리아와 가족들 사이에 벌어질 열띤 가족회의를 생각해보라. 마리아의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 사이의 고통스러운 상호관계를 생각해보라.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받았었음에 틀림없을 외면과 비난의 눈길들을 생각해보라. 소문은 무성해져서 사람들은 그녀를 재빨리 정죄했을 것이다.

“주님, 저는 단지 제가 당신의 아기를 잉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제게 이것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장 일반적인 행로로 약 90~100 마일에 이르는, 온 몸을 탈진시킬 정도의 위험한 여행을 요구했던 인구조사가 있었다. 비행기나 기차도 없었고, 버스나 자동차도 없었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가 나귀를 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긴 여정의 대부분을 걸어서 가야만 했을 것이다. 그녀는 임신 말기의 여인이었다. 그 여행은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쉽지 않았다.

베들레헴에는 “빈 방 없음”이라는 뜻말이 도처에 걸려 있었다. 마리아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이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은 가족의 우리뿐이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응답한 제게 돌아오는 보답입니까?” 마리아는 질문했을 것이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에 순종한 데 대한 보답입니까?”

여러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느라고 겪은 고통에 대해 탄식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랬다 해도 그녀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다. 다윗이나 다른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탄식했다. 우리는 탄식시들 가운데서 어떤 행들을 이런 아우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 “주님, 이걸 정말 참을 수 없군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 받는 시인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이 고약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하고 참된 형태의 탄식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을 잘 드릴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놀라운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의 이면에 대해 야고보에게서 배우는 첫째 교훈은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제 둘째 교훈을 말하려고 한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

야고보의 독자들은 고난에 대해 잘 알았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

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 핍박받았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야고보는 이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옛 선지자들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이든 참았고, 모든 것을 겪었으며, 결코 단번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옴을 생각해보라! 끔찍한 회오리바람이 그에게 몰아치는 것을 지켜보라. 옴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조언하는 이른바 “위로자들”에도 불구하고 옴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고자 노력한다. 옴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절하였다.

선지자들과 옴에게는 삼중의 진행상황이 있다. 고난 또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인내라는 인간의 응답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역으로 인내는 축복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를 복되다 하느니라”라고 야고보는 말한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이러한 인물들을 본보기와 스승으로 삼기 바란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자신의 작은 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밝히 말한다. 고통을 대하는 놀라운 방법이 아닌가?

왜 우리는 고난에 대해 그토록 철저하게 반문화적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가져다주고, 인내는 성숙과 온전함이라는 축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고난, 인내, 축복.

누군가가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인내는 오직 고난들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당신이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다.

아마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급히 이루려고 애쓸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지체됨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신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의 성숙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과정이 최종적인 결과물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많다. 이 사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하며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는 분이다.

때로는 기다림을 동반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사실은 오직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때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정지 버튼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않는가? 아마 우리는 우리들이 고난이라 표시된 버튼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기다림에 지쳐 있는가? 역경에 기운을 잃었는가? 아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이 시즌의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보면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한 해의 이 기간에 우리는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울기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주의 강림은 인내로써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역경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거듭 이야기한다. 그러나 주의 강림은 기다림을 넘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이다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